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9호 [루게 제24672호] 주제 103(2014)년 9월 16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블 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다》를 기네 출판사(미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2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에는 주제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기네조선전선협회,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기네 피나크리 주제사상연구소, 기네 라 솔리다리예출판사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주제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야드 살루브는 연설에서 조인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출판하게 된 것의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각하의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다. 그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긴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자주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자이다. 주석각하께서는 조선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을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 아니라 진보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경모를 받고 계신다.

김일성주석각하의 업적은 김정은원수각하의 선군혁명도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로씨야 아르콥시 라즈출판사에서 8월 2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여러 나라에서 행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3일과 4일, 도쿄, 프랑코,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오늘의 평양》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주체사상자력갱생연구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행사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디아 델리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1948년 9월 9일 자기의 탄생일을 온 세상에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66년간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공화국은 시종일관 독창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지향해왔으며 모든 로선과 정책, 활동을 철저히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켜왔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공교롭게도 조선인민의 자주권수호, 강성국가건설,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모토 버링인 아버티 사장은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시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신다고 격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4 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업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4 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이 15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혁명위업과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청년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안고 태양영성의 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우리 나라 청년동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인민군대의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기상으로 총돌격 앞으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각지 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군대의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기상으로 당정책용위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9월초에 비해 전력생산을 매일 평균 1.6%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자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천과 실적으로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역세계 받들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이들은 보아라와 타린발전기들의 가동대수를 1.4 배이상

으로 높이고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종전보다 많은 량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는 탄부들의 애국의 구슬땀이 스민 화력발전이 물뿜듯이 편속들이타치는데 맞게 현행생산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고 설비대보수를 동시에 다그치면서

전력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들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지금이야말로 자기들이 지닌 당성, 혁명성을 조국과 인민앞에 세검반이아 할 때임을 뼈에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성에서는 당면하여 화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성적인 힘을 집중하고 책임일군들부터가 한개 단위씩 맡고 현지에 내려가 전력생산자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성의 해당 부문 일군들은 석탄,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에 집중하여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발전하도록 넣어주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지 발전소들에 달려나간 성의 일군들은 보아라와 타린발전기앞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짜고들면서 로동계급과 함께 밤낮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생산돌격전을 치열하게 벌리고 있다. 북창의 대동력기지가 전력증산투쟁으로 불도가 마 나방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있는 전투장마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같은 세차게 지퍼를 더 많이 발전하도록 넣어주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의 불타는 총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발전설비들의 가동대수가 9월초에 비해 2.2 배이상으로 늘어나고 종전보다 매일 수십만kW의 전력이 더 생산되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청년직장과 3직장의 로동계급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고 기술규정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전담보다 전력생산량을 군 2배로 끌어올릴 때 2직장과 4직장의 전력생산자들은 보아라계통에 대한 금수 및 공기조절과 진공제통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일일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하자 및 운전설비들의 기동률을 부쩍 높이며 대보수를 동시에 다그치면서 지금보다 전력생산을 1.4 배 이상으로 더 늘일 대담한 목표밑에 전투장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 있다. 8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친 순천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총원한 기세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부단히 강화해나가고 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도 현행전력생산과 발전설비대보수를 동시에 다그치면서 대추전장기술혁신운동의 불길같은 대고조전투쟁에 많은 량의 전기를 생산보장하고 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임을 깊이 자각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열마진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지닌 시기에 열흘이상 걸리던 전전보수작업을 단 5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열생산직장들의 로동자들은 증기생산량이자 곧 전력생산량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아라를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순회점검, 엄격한 점검을 강화하여 매일 증기생산량을 높여가고 있다. 윤관직장의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석탄부림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짜고들면서 하차시간을 1분1초라도 더 줄이기 위하여 누구나 뛰고 또 뛰고 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비하여 열풍으로 화답하며 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화력발전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시간이 흐름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평양 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

청년들을 위훈의 창조자로

평안북도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청년들을 선군시대 청년전위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 특히 도에서는 청년들을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조신속도창조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당을 따라 언제나 큰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창조와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을 역적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고 대고조진군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도안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이 당의 강성국가건설

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장지리관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마이스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각급 공장, 기업소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이 생산과 건설의 돌격대로서 청년들의 기개를 넘김없이 보여주도록 고무추동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신의주방직공장의 청년들속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년간계획과 2년분생산과제를 수행한 혁신자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안의 수원명 청년들이 세로지주 축산기건설전투장과 고산과수농장건설장, 백두산전청년발전소건설장과 련합기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달려나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면서 청춘시절의

순간순간을 값높이 빛내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속에서 활발히 벌려 청년들이 도의 중요대상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립체물동영화관, 신의주학생소년궁전, 피천소년단야영소건설에 떨쳐나선 평안북도청년들격대와 신의주청년들격대의 청년들은 대상건설을 통해 모 받아안은 공리들을 안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며 건설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시,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자주 나가 청년들의 격대원들을 고무추동하면서 그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조신속도를 창조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시, 군청년동맹조직들에서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청년들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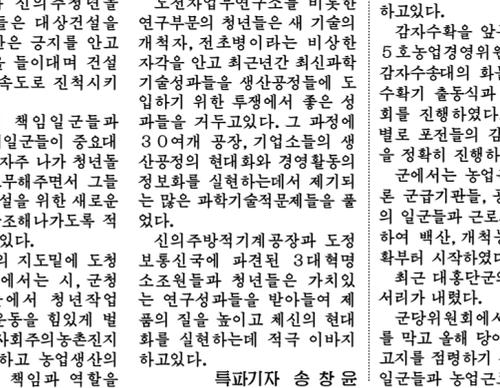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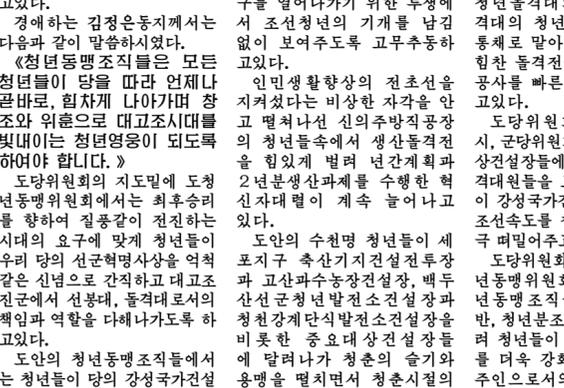
다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청년들이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를 자원전출하여 고향땅에 뿌리를 내리고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의 앞장에 서고 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당의 과학기술조선의 힘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같은 세차게 지퍼올리게 하고 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당의 과학기술조선의 힘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같은 세차게 지퍼올리게 하고 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당의 과학기술조선의 힘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같은 세차게 지퍼올리게 하고 있다. 특기기사 송창운

백두삼천리벌에서 감자수확 시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대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일과 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백두삼천리벌에서 감자수확이 시작되었다. 대흥단군에서는 밭, 보리가을을 다그쳐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감자수확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감자수확을 앞두고 대흥단군 5호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군감자수확대의 화물자동차, 감자수확기 출동식과 소농기구전시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농장별로 포전들의 감자수확도판정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군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군급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총동원하여 백산, 개척농장의 감자수확부터 시작하였다. 최근 대흥단군의 전방지역에서 수확이 내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서리피해를 막고 올해 땅이 제시한 일과를 집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서리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모든 역량과 수단이 감자수확에 총동원되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농장, 작업반에서는 서리피해를 받을수 있는 포전들에서부터 감자수확을 시작하고 있다. 홍암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일일계획대로 마무리하며 말씀하거 거두어들이는 원칙에서 감자수확을 내밀고 있다. 농사농동장에서는 감자줄기

자르기를 선행시키며 매일 10 정보에 달하는 밭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신흥농장에서는 감자수확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매일 계획된 면적의 감자를 수확하여 제때에 실어들이도록 하고 있다. 농장에서는 감자수확기에 기대공과 선별공을 고정배치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얻은 감자도 허실함이 없이 거두어들이게 하고 있다. 서두농장의 운전수들과 운전공들은 운전기계의 수리정비시간을 매일 30분이상 앞당겨 끝내고 트랙터도, 감자수확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다. 군감자수확대의 운전사들은 자동차적체함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더 많은 감자를 실어들이기 위해 사인 특기기사 전철주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방도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전력의 전기, 한국의 석탄, 함방들의 물도, 한국의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100년래의 처음 보는 왕가물로 하여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는 물부족으로 전력생산에서 커다란 장애를 받고있다. 나라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 각지 화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탄광들과 철도운수부문에 서로 편대적협전의 불길줄을 세우게 지어올리고있다.

오늘의 조건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박차를 가하여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완수하는 전력생산에 못지 않게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얼마전 우리 전력공업성의 해당 일군들을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보기 드문 왕가물도 나라의 전력생산에 긴장한 오늘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려면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돌려야 하는가? 부국장 강택진: 다 아바와 같이 전력생산과 소비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으므로 결속하여야

전력공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다. 전력생산에 맞게 전력부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 전압과 주파수를 비롯한 전기의 질적지표들이 떨어져서 그것은 전력생산자와 소비자를 포괄하는 전반적전력계통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부하조절을 잘못하여 전력주파수가 1Hz만 떨어져도 해당 전력계통에서 전력손실은 상당히 증가하며 전기가 그만큼 망비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전력생산량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부하조절을 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전력공업성에서는 지금 생산을 맡은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들과의 긴밀한 연락에 중요부하단위들에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원칙을 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고있다.

책임부원 리승남: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가르쳐주신대로 교차생산조직을 더욱 짜고드는 것은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중요한 방도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조건에 맞게 탄광들과 광물생산단위들, 그 수송을 맡은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주요 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중요건설장들을 전력계통에 연결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도의를 거쳐 중요한단위들에 대한 교차생산조직

표를 완성하고 그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다. 나라의 전력생산량에 맞게 우리 성에서 선로별교차와 지역별교차를 기동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생산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별, 공업별, 기계설비별교차생산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무조건 철저히 준수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기자: 생산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는데서 송배전계통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부국장 김용철: 전기는 송배전 선로들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것만큼 송배전계통에서의 전력손실을 극력 줄이는데는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도다. 기자: 송배전관리국과 각 도, 시, 군송배전부문 일군들과 공동에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셨다. 현실적에서 국가의 통일적지도법에 중요한 단계를 수반하고 있는 송배전계통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해당 지역의 송배전선로들과 송배전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타산하여 송배전계통을 방상적으로 구성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정에 맞게 선로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배전선로들을 자기의 기술적특성과 용도에 맞게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부처장 리영택: 각 도들에서 배전전압을 2-3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되어 온데, 그중에서 배전전압을 3배로 끌어올리는데 배전선로에서의 전력손실이 중전, 고전압에서 1/10로 줄어들어 전력손실을 줄이는데서 송배전계통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기자: 과학적인 부하전력관리체제를 수립하는 사업도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고 본다. 우리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해당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리용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정에 맞게 선로들을 합리적으로

호를적의 전력관리체계 도입

평양시 송배전부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새로 받아들인 전력관리체계는 송배전계통의 숫단위로부터 말단 소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력공급과 소비를 보다 과학적으로 조절통제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 주는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 송배전부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로운 전력관리체계를 받아들이는 사업에 드문 박차를 가하였다. 그속에서 조광혁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전력공업성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지조만에 단계별로 명백히 세우고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오면서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특히 원만한 설비들을 짧은 시일안에 원만히 갖 주기 위하여 큰 힘을 넣고 각 구역송배전소들과의 면회를 긴밀

평양시 송배전부에서

히 하면서 기술지도를 강화하였다. 일군들이 현지를 직접 밟으며 전기설비들과 송전계통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수십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점적적으로 거들면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전력공업성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산물이 아니라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집결공업총합대학의 연구사와 함께 함께 연구하고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여 집결부 비롯한 주요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기술발전과 방지조만을 담당하는 김진철, 박원학, 맹우철동무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서 각 공장, 기업소들과 함께 배전설비들을 질적으로 끌어냈다. 하여 평양시 송배전부에서는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10여개의 구역송배전소, 수십개의 변전소들에 새로운 전력관리체계를 받아들이는 사업에 드문 박차를 가하였다. 그속에서 조광혁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전력관리체계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지조만에 단계별로 명백히 세우고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오면서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특히 원만한 설비들을 짧은 시일안에 원만히 갖 주기 위하여 큰 힘을 넣고 각 구역송배전소들과의 면회를 긴밀

이 전력관리체계의 경제적 효과

이 전력관리체계의 경제적 효과는 우선 컴퓨터에 의한 실시간상호를 통하여 전력의 송배전량과 소비상태를 세밀하게 장악하며 부하조절과 교차생산조직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는데 있다. 특히 생산단위들에 걸맞은 전기를 더 많이 보내줄 수 있으며 적지 않은 절약에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운영해본데 의하면 총적인 전력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같은 전력량으로 이전보다 2개 구역의 주민용전력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예비를 찾았었다. 뿐만아니라 교차생산조직이 시의 전민적인 범위에서 지말하게 맞물려 한개의 큰 공장, 기업소에 보내주던 전력량으로 3개의 중소규모공장을 더 돌릴 수 있는 예미가 마련되고있다.

새로운 전력관리체계의 종전과는 달리 현대적인 이동통신망법을 리용함으로써 자료전송의 신속정확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송배전계통 지휘와 설비들의 정상가동도 보다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지금 평양시 송배전부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시 송배전계통의 특성에 맞게 자동차단 및 복구기능을 원만히 계통보호를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개발과 도입을 꾸준히 내밀면서 전력관리체계가 현실에서 더 큰 은을 내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공정의 전력계통에 도입된 능동형무효전력보상장치

이 열간압연공정의 경우에는 그와 달랐다. 압연시 걸리는 충격 부하로 하여 해당 전력계통이 큰 영향을 받고 주파수와 전압의 심한 변화는 전반적인 설비들의 운영에 역작용을 하였다. 연구소의 기술자들은 첨단수준의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첨단기술을 응용하는 능동형무효전력보상장치를 기술과제로 정하였던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파악도 없는 분야에 발을 들여 놓는것보다는 이미 다른 단위들에 도입한 장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첨단기술의 높은 목표를 거머잡고야만 하는것을 결심하는 조급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부기사장 최영일동무

호평받는 능동형무효전력보상장치

를 비롯한 기업소의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도움없이 열간압연연장공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자료들도 충분히 연구해나갔다. 첨단기술도 우리의 실정, 김책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체적관점과 필자에 서서 기술과제에서의 한조항한조항마다에 창조적 사색과 조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지은을 비롯하여 한때는 철철의 신념으로 용기를 배하여 이 불발한 리방목동무를 비롯한 연구소기술진단의 애국헌신의 노력에 기업소의 실정에 맞는 기술과제가 완성되고 기술학의 의도 성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제작된 첨단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능동형무효전력보상장치는 드디어 2년전 열간압연 생산공정의 전력계통에 성과적으로 도입되었다. 첨단기술에 의거한 새 장치를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다. 지난 시기 열간압연공정을 들 때 괴할 수 없는것으로 되어 있던 전력계통의 충격부하가 완전히 없어지고 역률은 언제나 1에 가깝게 보장되고있다. 유향이 큰 전동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의 운영이 발생하는 무효전력을 그시기 능동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해당 전력계통에서의 전압강하와 그로 인한 전력도중손실도 완전히 없어졌다. 결과 전압과 주파수를 비롯한 전기의 질적특성이 개선됨으로써 현대적으로 꾸러진 열간압연공정의 전자자동화설비들과 기계설비들이 자기의 기술적특성을 원만히 발휘하고 압연제품의 질도 한결 개선되었다. 본사기자 김향란

적으로 도입되었다. 첨단기술에 의거한 새 장치를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실속있는 교차생산조직표

위 대한 정도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할수록 교차생산조직을 짜고 묶어야 합니다.》

평양326전선공장은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교차생산조직을 과학적으로 짜고 묶어 실속있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단위를 이룩하였다. 이 공장의 교차생산조직정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교차생산조직표가 하루 전에 미리 작성된다. 오전 11시, 생산과와 공무동력과가 주동이 되어 공장참모부에서 다음날 교차생산조직정형을 세밀하게 편다. 이를 위해 다음날 수행해야 할 계획과제와 제품생산에 참가하는 설비들의 가동 및 기술상태, 로력보장과 자체확보정형 등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다음 해당 송배전단위와의 긴밀한 연계에 전력사용한도량에 철저히 준하여 공급되는 전기량을 확정한다. 이에 기초하여 흐름식으로 된 생산공정도와 공정별부하에 맞게 교차생산조직표를 과학적으로 작성한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참모부에서 제출한 교차생산조직표를 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진지하게 협의하고 부족한 측면을 바로잡는 후야야 시달한다. 본사기자 리병준

평양326전선공장에서

공정일군들은 중요직장들은 물론이고 보조단위들과 후방부문의 마지막작업반, 마지막설비까지 포함한 교차생산조직표를 하달하고 100여대에 달하는 교차생산조직표를 적극 활용하여 공급되는 전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정된 시간안에 맡은 제품생산량을 질적으로 끝내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며 주요생산단위들과 함께 신제직장과 공무직장, 생필직장, 후방부문 등 보조단위들과 작은 설비들도 적지 않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이밖에도 변압설비들과 전력선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정비 보수하고 전력소비가 적은 조정기구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파대용량의 설비들을 전기적 여유를 쓰거나 쓰지 않는 설비들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리는것을 비롯하여 이곳 공장의 교차생산조직과 전력 절약에서 따라배울 점이 적지 않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처럼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교차생산조직을 보다 과학적으로 짜고 묶는다면 생산과 절약에 다가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병준

현대대전기기의 산물인 레드들은 같은 비침도를 보장하는 백열등에 비하여 1/14, 콤팩트등에 비하여 1/3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며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도 빛을 내기 크게 차이하지 않는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초기에 백열등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수명이 짧았으나 최근 레드등의 일부 고효율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개선되고있다. 최근 평양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도, 시, 군들에서는

전기절약의 큰 예비-레드등 실정에 맞게 단계별공표표를 정하고 종전의 조정등들을 레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전력공업성의 해당 일군의 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가정용조명으로 리용하고있는 백열등과 콤팩트등을 전부 레드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조정시간에 걸리는 전력은 순시로 수십만kw나 된다고 한다. 공장, 기업소, 각

당사의 현명한 명도법에 우리나라에는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 삼천리조명기구공장과 신의주시를 비롯한 적지 않은 단위들에 현대적인 레드등생산기지가 꾸려져있다. 레드등에 대한 날로 높아지는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단위들에서는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보다 값싼 일련으로 질 좋은 레드등생산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본사기자 김향란



회창군 신흥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작식 한몫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는 말이 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마른 일거리지 않는 어머니들의 수고를 헤아려 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수백명의 자식들을 키우는데 어머니당일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관심 성실하지 않아야 하며 언제나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신흥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축산기진건설과 먹이발간을 선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도 이루어졌다. 경제하는 사업수행에서 그로써 사방시는 인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것으로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자는 초급당비서의 절실한 호소는 일군들의 가슴에 뜨겁게 울려오았다. 정양소건설의 전진간 초급당비서는 내내 비록물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대중을 발동하여 산골짜기를 깎고 수심리 떨어뜨린 채석장에서 돌을 날라다 채워넣어 기공공사를 끝냈으며 편이아 세찬 공격적으로 축산기지, 정양소건설을 밟아 내밀었다. 낮에는 정양소건설에 떨쳐나선 돌재대원들과 함께 일하고 밤에는 화전놀이며 맹진등 등 광망장들에 들어가 착암도 하면서 현신하는 그의 열정에 늘 피곤이 질게 풀려있었다. 어느날엔가는 집생인 괴로로 쓰러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드디어 3차의 멋을이던 정양소건설이 끝났다. 땅뽕이 개간한 밭들에 는 열매바다가 펼쳐졌고 축산기진에는 피동피동 살던 돼지가 우글우글하였다. 올해 봄철 양이 시작되었다. 정양생들 누구나 떠나기 싫어하는 바람에 다수가 정양시에서 늦어졌다. 하지만 정양시에서 늦어졌다는 이야기는 광부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어머니당일군의 헌신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된다. 어머니성정으로 광부들의 생활을 돌봐주셨다는 박오철동무의 진정어린 헌신은 지난해 단

생활조건 보장과 생산실적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관리과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증산의 불발량이 세계를 놀라시켰다. 2년분, 3년분계획완수자들은 늘어나 공장의 자량으로 되고 있다. 그 원수자들 대부분이 로동자합숙 학생들이다. 그들의 혁명적의에 의해 찬생실적은 날마다 높아지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들은 은정속에 솟아난 세상에 들도 없는 로동자합숙에서 사소한 불만도 느끼지 않도록 학습생활의 생활조건보장사업을 잘하고있는 이곳 합숙관리과 부문당위원회 일군들의 남다른 수고는 그대로 증산의 밀거름으로 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생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생활조건 보장과 생산실적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증산의 불발량이 세계를 놀라시켰다. 2년분, 3년분계획완수자들은 늘어나 공장의 자량으로 되고 있다. 그 원수자들 대부분이 로동자합숙 학생들이다. 그들의 혁명적의에 의해 찬생실적은 날마다 높아지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들은 은정속에 솟아난 세상에 들도 없는 로동자합숙에서 사소한 불만도 느끼지 않도록 학습생활의 생활조건보장사업을 잘하고있는 이곳 합숙관리과 부문당위원회 일군들의 남다른 수고는 그대로 증산의 밀거름으로 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생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생활조건 보장과 생산실적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증산의 불발량이 세계를 놀라시켰다. 2년분, 3년분계획완수자들은 늘어나 공장의 자량으로 되고 있다. 그 원수자들 대부분이 로동자합숙 학생들이다. 그들의 혁명적의에 의해 찬생실적은 날마다 높아지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들은 은정속에 솟아난 세상에 들도 없는 로동자합숙에서 사소한 불만도 느끼지 않도록 학습생활의 생활조건보장사업을 잘하고있는 이곳 합숙관리과 부문당위원회 일군들의 남다른 수고는 그대로 증산의 밀거름으로 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생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생활조건 보장과 생산실적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증산의 불발량이 세계를 놀라시켰다. 2년분, 3년분계획완수자들은 늘어나 공장의 자량으로 되고 있다. 그 원수자들 대부분이 로동자합숙 학생들이다. 그들의 혁명적의에 의해 찬생실적은 날마다 높아지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들은 은정속에 솟아난 세상에 들도 없는 로동자합숙에서 사소한 불만도 느끼지 않도록 학습생활의 생활조건보장사업을 잘하고있는 이곳 합숙관리과 부문당위원회 일군들의 남다른 수고는 그대로 증산의 밀거름으로 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생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생활조건 보장과 생산실적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증산의 불발량이 세계를 놀라시켰다. 2년분, 3년분계획완수자들은 늘어나 공장의 자량으로 되고 있다. 그 원수자들 대부분이 로동자합숙 학생들이다. 그들의 혁명적의에 의해 찬생실적은 날마다 높아지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들은 은정속에 솟아난 세상에 들도 없는 로동자합숙에서 사소한 불만도 느끼지 않도록 학습생활의 생활조건보장사업을 잘하고있는 이곳 합숙관리과 부문당위원회 일군들의 남다른 수고는 그대로 증산의 밀거름으로 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생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2년전 봄, 경사급한 비목들의 산물짜기들을 몇번이나 살살이 훑는 사람이 있었다. 회창군 신흥광산 초급당비서 박오철동무였다. 정양소자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는중이었다. 마침내 맞닿은 자리를 골라잡았다. 비탈이 좀 심해 건설에는 불리하지만 앞에는 큰 개울이 흐르고 주변에는 개간할 땅도 있어 정양소자리로는 그저 그만이었다. 다음날 해당 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현지에서 정양소건설과 관련한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김향란

본사기자 김향란

본사기자 김향란

본사기자 김향란

본사기자 김향란

본사기자 김향란

